

오염된 지구 우리가 그랬어



VOL.1 오염된 지구

지구를 지키는 대안제품들
Alternative Products for Earth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우연한 계기로 환경문제의 심각성, 특히 플라스틱 문제를 알게 되었고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플라스틱 문제를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는 ‘우리가그랬어’ 문화예술기획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그랬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활동명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그랬어’ 라는 의미,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랬었지만 심각성을 알아가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우리가그랬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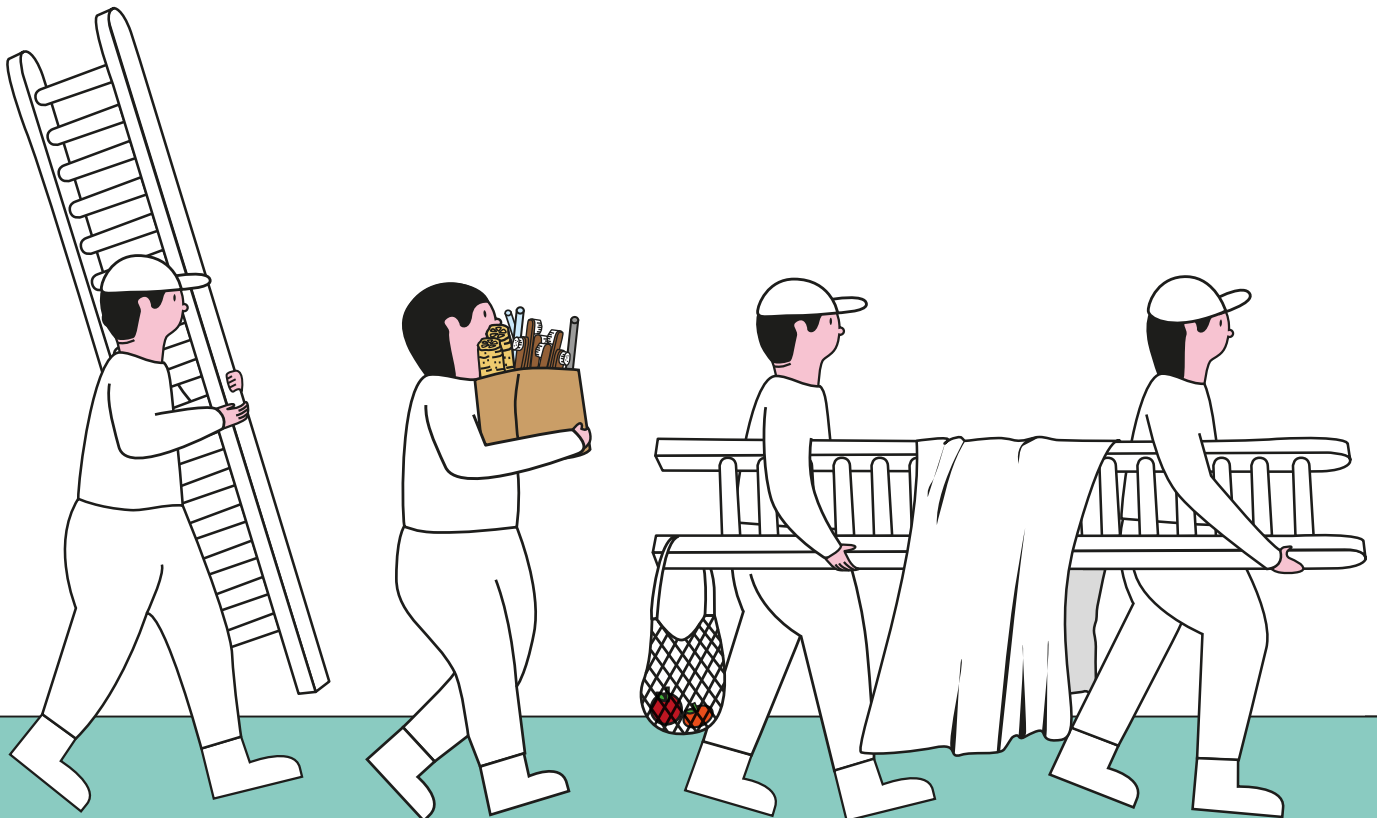
우리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그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평소 환경이나 문화예술을 잘 모르는 분들도 ‘우리가그랬어’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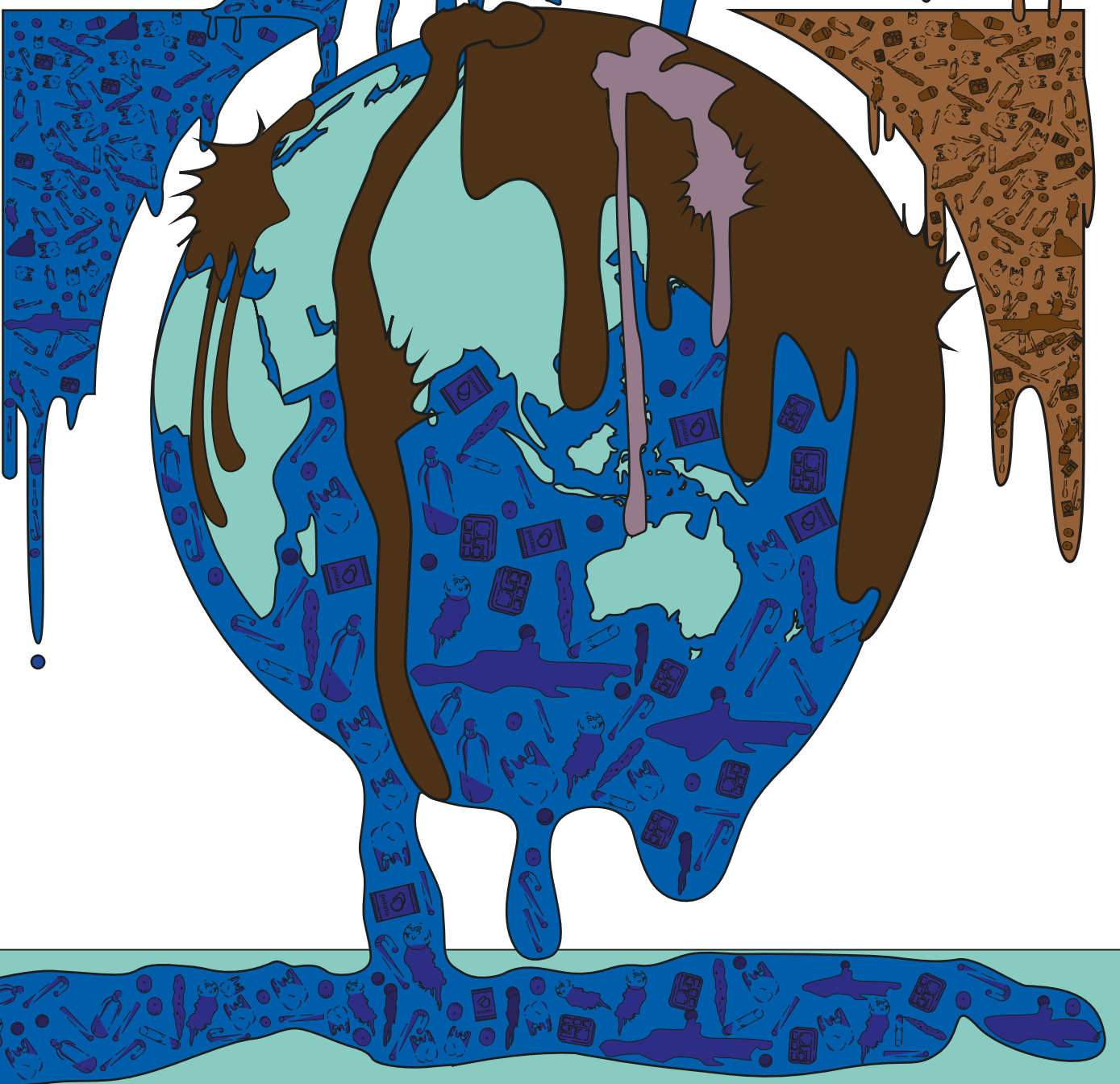
‘우리가그랬어’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생겨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합니다.

‘우리가그랬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같이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무거운 문제를 해결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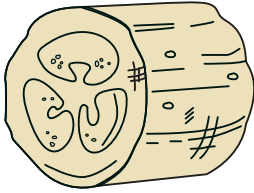
가장 평범하며 비전문가인 우리가 알아가고 만들어가는 ‘우리가그랬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참해서 함께 바꿔 가요!

동참해주세요. SNS : @w.e.d.i.d.i.t | 참여신청 : bit.ly/우리가그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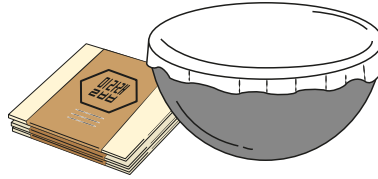
지구를 지키는 대안용품들



01 천연수세미

천연 수세미는 수세미 열매를 잘 말려서 만든 친환경 수세미로 플라스틱(합성 섬유)으로 만들어진 아크릴 수세미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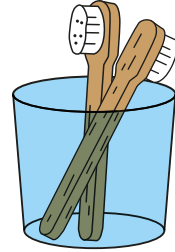
아크릴 수세미에서 나오는 섬유 조각들은 하수구로 흘러들어가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반면 천연 수세미는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02 밀랍랩

밀랍랩은 소각 과정에서 탄소와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비닐랩과 알루미늄 포일을 대체한 다회용품입니다.

벌집의 밀랍과 자투리 천으로 만들어진 다회용품으로 6개월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며 손의 열기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03 대나무 칫솔

매년 약 50억개의 칫솔이 사용되고 버려집니다. 플라스틱 칫솔들은 오랫동안 썩지 않고 그냥 땅에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먹이사슬로 인해 그대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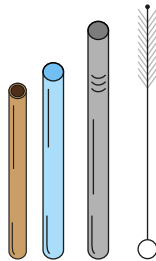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칫솔을 대나무 칫솔로 바꾼다면 한해 4개 이상의 플라스틱 칫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04 소프넛

소프넛은 '무환자 나무'라고도 하는 소프넛 나무의 열매로 수질 오염의 원인인 합성 세제를 대체한 천연 세제입니다.

사포닌이라는 천연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어 거품이 풍성하고 잔여 세제 걱정이 필요가 없는 대체용품입니다.



05 다회용 빨대

다회용 빨대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세척, 삶기가 가능한 스테인리스, 유리 소재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자연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썩빨대, 대나무 빨대 등이 있습니다.

다회용 빨대 1개를 1년 동안 사용하면 플라스틱 빨대 약 540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06 다회용 주머니 & 가방

한 해 바다에서 건져지는 비닐봉지 약 2만 4천 톤, 매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비닐봉지의 수는 5천억개 ~ 1조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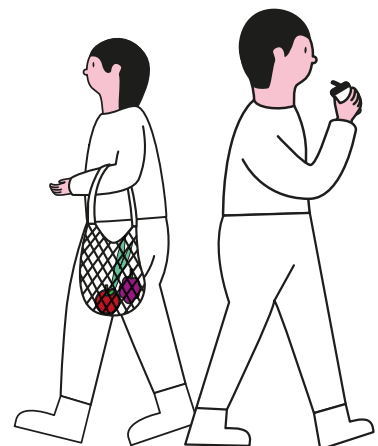
대형마트와 시장에서 주는 비닐봉지 대신 다회용 주머니와 가방을 이용하면 지구도 살리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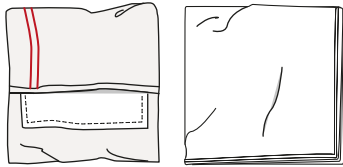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란?

제로웨이스트는 일상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Waste)를 최소화(Zero)하고 줄여나가는 운동입니다. 또한 자신의 소비와 생산이 사회, 환경 등 넓은 범위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소비하고 재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합니다.

제로웨이스트 실천가 비 존슨(Bea Johnson)이 제안하는 5R을 실천한다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기(Refuse)
- 두 번째. 필요하면서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줄이기(Reduce)
- 세 번째. 소비하면서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기(Reuse)
- 네 번째. 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기(Recycle)
- 다섯 번째. 나머지는 썩히기(R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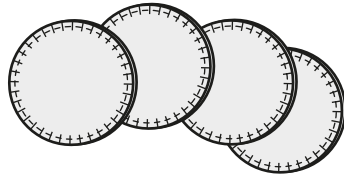




07 손수건 & 와입스

와입스는 화장지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천으로 갑자기 손 닦을 때, 부상을 당했을 때, 냄비 받침대, 컵홀더 대용 등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한 롤을 와입스로 바꾼다면 우리나라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일년에 5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08 재사용 화장솜

일회용 화장솜은 폴리에스테르 성분이 포함되어 미세플라스틱이 될 뿐만 아니라 얼굴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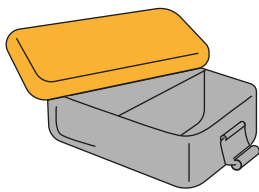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화장솜 대신 다회용 화장솜을 사용하면 내 몸도 지키고 미세 플라스틱도 줄일 수 있습니다.



09 텀블러

우리나라에서 매일매일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은 매년 260억개에 달하고 재활용되는 컵은 극히 드물며 그마저도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하수로 흘러들어가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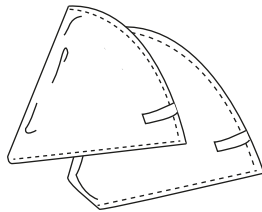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0 도시락통 & 반찬통

사람들은 매주 평균적으로 약 2000여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합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신용카드 한 장의 질량과 맞먹는 5g으로, 연간 250g에 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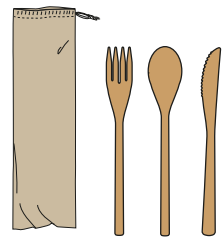
반찬을 살 때, 음식을 담을 때 테이크아웃 용기 대신 도시락통을 사용하면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 다회용 커피필터

간편해서 인기가 많은 커피 캡슐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썩지 않아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일부 도시에서는 캡슐 커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캡슐 커피를 즐기고 환경을 생각하는 다회용 커피 필터를 사용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12 다회용 식기도구

배달 음식과 간편함을 추구하게 되면서 일회용 식기도구의 사용은 증가하였습니다. 몇몇 식당 심지어 집에서조차 플라스틱 스푼과 일회용 젓가락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숟가락을 빼면 당장은 설거지가 늘어나고 불편하지만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를 시작하는 방법

당장 제로웨이스트를 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레스웨이스트(Less Waste)'의 삶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회용 쓰레기와 일회용품 관찰
2. 부엌 선반에 있던 텀블러, 옷장 서랍에 있는 손수건 등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 찾기
3. 가장 많이 사용하고 버리는 용품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었다면 버리지 않을 대안 제품 찾기
4. 테이크 아웃 시 도시락 용기, 냄비, 텀블러 등 다회용 용기 활용하기
5.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일회용품을 포함하는 제품인지 고려하고 소비하기
6. 스킨, 로션, 비누 등 사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기술 만들기
7. 분리배출하는 방법 찾아보고 실천하기



우리가 그랬어 MEET UP

플라스틱 문제를 시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동네책방 밋업 프로젝트입니다. 평범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동안 환경 문제에 관심이 적었던 시민이라면 더욱더 환영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시선을 가진 여러 시민이 함께 모여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인식을 넓히고 연대감을 경험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 보는 시간에 함께해주세요.

참여신청 : bit.ly/우리가그랬어
Instagram : @w.e.d.i.d.it

1차 밋업 이야기

일시 : 2019년 10월 25일 16:00 ~ 21:00

장소 : 제주현대미술관 및 북갤러리 파파사이트 (한경면 저지리)

참여한 사람들

최윤경 : 오래된 건축물을 복구 _ bokku하여 건축물의 본연의 가치 _ merci를 재해석하는 메르치보꾸 대표.

파파김 : 디자인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업사이클 아트에 관심이 많은 현 북갤러리 파파사이트 공동 대표.

황인철 : 디자인과 브랜딩을 통해 쉽고 아름답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 핸들의 대표.

곽예리, 김새롬 : 핸들의 디자이너. 우리가 그랬어 디자인.

김나솔 : 제주 지역사회의 남은 것과 모자란 것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를 비전을 세운 제주스퀘어 대표. 우리가 그랬어 기획자.

전정순 : 평소 환경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았고 2018년부터 환경 및 동물 보호 활동을 꾸준히 하는 1인 NGO. 우리가 그랬어 기획자.

우리가 무엇을 했다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생태예술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의 세계 최초 대규모 개인전 <크리스 조던 아름다움 너머 - 불완전한 진실을 만나다>가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전시회를 함께 보러 가는 밋업을 가장 먼저 기획했다. 전시회 관람이 끝난 후에는 북갤러리 파파사이트에서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 뒤 하루 동안 모은 쓰레기로 포스터를 만들어보았다. 전시회에서는 크리스 조던이 감독한 장편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와 그의 초기작부터 최근작을 모두 아우르는 사진 및 설치미술 64점을 볼 수 있었다. <알바트로스>라는 영화는 크리스 조던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의 탄생과 죽음을 8년간 추적하며 촬영한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북태평양 한가운데 사는 이 새들은 플라스틱과 먹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바다가 주는 것을 믿고 새끼를 먹일 뿐이다.



플라스틱 프리 모임을 위하여

저녁으로 준비한 음식은 화덕피자와 김밥, 떡볶이였다. 음식을 준비할 때 포장을 최소화하고 비건 옵션을 제공자는 기획 의도에 따라 고민 끝에 결정한 메뉴였다. 화덕피자 자체는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지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피클과 소스와 함께 커다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그 자리에서 비닐봉지를 벗기고 알맹이만 들고 나왔다. 다음에는 피클과 소스를 담은 용기를 미리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밥과 떡볶이는 준비해 간 김치통과 냄비에 담아왔다. 피자 한 판과 김밥 절반은 나름 비건 메뉴로 준비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텀블러를 챙겨왔다. 멋진 사람들!



우리가 나는 이야기들 - 전시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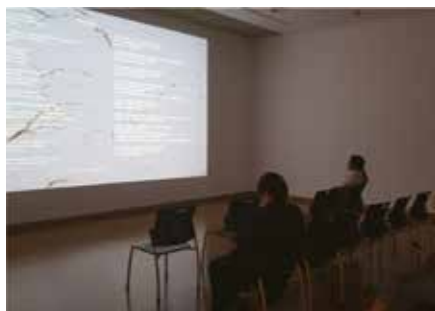
전정순 : 뛰어난 영상미를 선보이며 생명의 아름다움, 경이로움, 치열함을 묵직한 메시지와 함께 전달하는 영화를 보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쩌다 지구가 이 지경까지 되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저 살아갈 뿐인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알바트로스에게 인간으로서 미안했습니다.

작가의 대표작인 '숫자를 따라서' 시리즈 중에는 공룡 그림도 있었는데 웬 공룡일까 하며 작품 설명을 읽어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10초간 전 세계에서 사용된 비닐봉지 24만 장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깨알 같은 작은 점들이 비닐봉지임을 알게 되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숫자는 때로는 그 어떤 설명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작가의 최근작인 '슈마바 숲'도 인상적이었는데 무분별한 벌목으로 사라지는 슈마바 숲을 더없이 아름답게 포착한 사진이었어요. 아름다움이 더 진한 슬픔으로 다가오는 작품이었어요.

황인철 : 영상미가 뛰어난 작품이어서인지 내용이 많이 와닿았어요.

김나솔 : 순수의 세계를 경험한 느낌이었어요.



최윤경 : 사진도 충격적이었지만, 영상이 전하는 충격이 훨씬 컸습니다.

최윤경 : <플라스틱 바다>라는 다큐멘터리도 본 적이 있는데 <알바트로스>는 훨씬 더 밀도가 있는 작품 같아요. 작가가 인식하고 성장해가는 과정과 알바트로스의 생애가 겹쳐지는 구성이 참 좋았어요.

황인철 : 이대로라면 알바트로스보다 느린 시간을 사는 인간의 생애도 결국 알바트로스의 생애와 다르지 않겠조. 동물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면 인간도 살 수 없을 거예요.

김새롬 : 영화 초반에 버려진 인공물과 새들이 함께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대비가 매우 두드러져서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어요.

“애도는 슬픔이나 절망과는 다르다. 애도는 사랑과 같다. 애도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또는 이미 잃은 것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애도에 마음의 자리를 내준다면 이는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근본으로 이끌 것이다.”

크리스 조던(Chris Jordan)

최윤경 : 영화 대사 중 '애도는 사랑과 같다'라는 대사가 특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곽예리 : 특히 마지막에 절규하며 죽어가는 새의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고 슬펐어요.

황인철 : 이 영화를 보고 나니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상을 통한 동기 유발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테니까요. 이 영화를 좀 더 많은 사람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파파김 : 아무리 거대한 문제이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기업과 정부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충격은 강력하지만 아주 오래가지는 않잖아요. 작더라도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나솔 :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에 관심이 많은지 미처 몰랐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변에 계속 물어보는데 의외의(?)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관심이 없어서 묻지 않았을 뿐 그분들은 원래 관심이 많았던 거죠.

플라스틱은 무한히 쪼개질 뿐 없어지지 않는다.

전정순 : 전에 어떤 실험 관련 기사를 읽었어요. 플라스틱에 칩을 심어 플라스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았는데, 신호가 없어지지 않았대요. 플라스틱이 무한히 쪼개질 뿐 없어지지 않는다는 또 다른 증거죠. 제주도에 축제가 600여 개(?)라고 하는데 축제 때 사용할 수 있는 식기 키트를 제작해서 행사를 운영하고 수거 후 세척해서 다시 쓰는 시스템 같은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김나솔: 우리가 그랬어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고 나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두 번 생각하지 못한 거죠.

한 해 동안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800만 톤입니다. 50% 이상의 플라스틱이 단 한 번 사용된 후 버려지며 플라스틱은 썩는데 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전정순: 작년에 <플라스틱 바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한 카페 사장님이 다음날 바로 종이 빨대와 스테인리스 빨대를 주문하셨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손님에게 빨대가 필요하냐고 묻기 시작했는데, 막상 물으면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최윤경: 전에 신용카드에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빨대는 빼주세요.'라고 적힌 작은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본 적이 있어요. 일상을 들여다보고 고민을 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없애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윤경: 저희 회사에서는 폐보도 불력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에요. 화단 테두리를 만드는 것처럼 가공 없이 있는 그대로 재활용하면 가장 좋고, 차선책으로는 파쇄 후 새로운 쓰임이 있는 물건으로 다시 만드는 방법을 고민 중이에요. 개인이 폐보도 불력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쓰임이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정부시는 폐보도 불력을 시민에게 무상 공급하는 बैं크를 만들었다고 해요.

김나솔: 전에 예술가들과 작업하다가 소품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공연 후 버려지는 소품들이 아까워서 일종의 बैं크 개념을 운영해보면 어떨지 여러 예술가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요. 소품의 특성상 범용적이기 어렵고, 공연 내용과 스타일이 맞아야 하다 보니 활발히 운영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파파김: 요즘은 뭐든 홍보를 SNS 위주로 하는데 더 넓은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 아날로그적인 접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전정순: 새로운 아이디어도 좋지만 이미 있는 정책들이 홍보가 잘 안돼서 이미 있는데 시행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 듯해요. 그래서 있는 정책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쓰레기 바꾸처는 제주도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캔 압축기와 페트병 압축기를 설치하고 시행 중이고, 폐어구 등 수협에 갖다 주면 보상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에요. 다만, 제주도 쓰레기 바꾸처는 사용자가 영수증을 직접 모아야 해서 좀 불편해요. 압화화폐 등 사용하기 편하게 개선하면 좋겠어요.

재활용도움센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도우미와 품목별 배출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9개소(제주시 8곳, 서귀포시 11곳) 설치되어 있고 점차 확대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 위치입니다.

1. 이도2동 학사로 재활용도움센터
제주시 도남로5길 23-1 (하천)
2. 이도2동 재활용도움센터
제주시 이도2동 1212-14 (동부경찰서 서측)
3. 삼도 1동 재활용도움센터
제주시 서사로19길 25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측)
4. 용담 1동 재활용도움센터
제주시 용담 1동 2830-4 (중앙초등학교 서측)
5. 아라동 재활용도움센터
제주시 아라1동 370-12 (아라동 하천)
6. 연동 재활용도움센터
제주시 신대로 12길 54 (신제주공영주차장)
7. 노형동 재활용도움센터
제주시 진군길 48(공영주차장)
8. 우도면 재활용도움센터
제주시 조일길 123-5(해수욕장 인근 우도면)

최윤경: 쓰레기를 주워본 사람 입장에서 말하자면 모든 쓰레기를 줍지만 유리병을 보면 저건 100원짜리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폭넓은 사람에게 쓰레기가 자원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는 보증금 제도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파파김: 인식을 전환하려면 시각적으로 체감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체험 전시를 본 적이 있어요. 하루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수도관을 흐르는 물소리를 청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플라스틱을 주제로 체험 전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쑤시개를 참 많이 썼지만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삶에서 없어진 물건들을 추억하는 듯한 전시, 혹은 플라스틱 프리 세상이 된 가상적인 미래에서 2019년 현재를 돌아보는 듯한 전시를 구성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이를하여 'Remember Plastic'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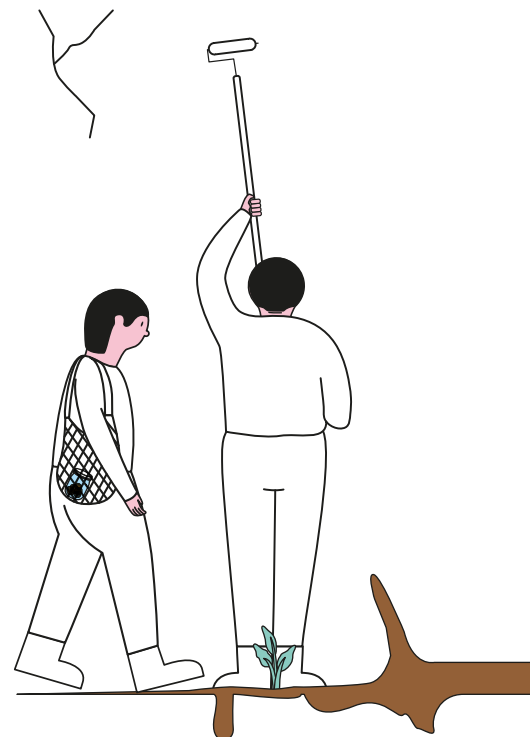
업사이클 포스터 만들기

한 시간 동안 7명의 참여자가 공동 작업으로 쓰레기를 오리고 붙여 우리가 그랬어 프로젝트의 취지를 표현하는 포스터를 만들었다. 빈 도화지 위에서 요거트 통이 신사 모자가 되고, 스티로폼 용기가 뿔뿔이 되고, 김밥을 찢던 알루미늄 포일이 파도가 되고, 미국 쓰레기봉투가 고이 접혀 나비넥타이가 됐다. 여러 가지를 오려 붙인 후에는 글씨도 적어 넣었다. 빈 도화지는 점점 다양하게 채워졌다.



마무리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한 영화 <알바트로스>. 사진도 충격적이지만 영상은 그 충격의 밀도가 훨씬 높았다.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받은 충격을 말로 전달하기는 어려울 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일은 누구나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미 제작된 작품을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상영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플라스틱 문제를 테마로 한 체험 전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작지만 가장 효과적인 개인의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나온 이야기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이어진다.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혼자서 하기 힘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쁘다는 사실이다.



2차 밋업 이야기

일시 : 2019년 11월 5일 20:00 ~ 22:30

장소 : 미래책방 (제주시 삼도2동)

참여한 사람들

인화로협동조합, 이경민, 문선영, 이경아, 김태현, 김연희, 김수은

전규미, 김석범 :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황인철 : 디자인과 브랜딩을 통해 쉽고 아름답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 핸들의 대표.

곽예리 : 핸들의 디자이너. 우리가 그랬어 디자인.

김나솔 : 제주 지역사회의 남는 것과 모자란 것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를 비전을 세운 제주스퀘어 대표. 우리가 그랬어 기획자.

전정순 : 평소 환경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았고 2018년부터 환경 및 동물 보호 활동을 꾸준히 하는 1인 NGO. 우리가 그랬어 기획자.

우리가 무엇을 했다

DAPLS를 연사로 모시고 “제주에서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연을 듣고 나서 플라스틱 문제를 위해 시민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자유 토크 시간을 진행했다.

DAPLS는 어떤 단체인가

DAPLS(답엘에스)란 일반적인 후원보다는 함께하는 일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개발협력 대안 프로젝트팀으로 제주 출신의 글 쓰고 사진 찍는 두 명(신상미, 이혜령)이 설립했다. 방글라데시에서 2년간 봉사 활동을 하며 만난 두 사람은 제주로 돌아온 이후에도 방글라데시 예술가들과 협업하면서 현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제주도에서는 <Smile, 방글라데시>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의 예술 활동 및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세계시민 교육에 힘쓰고 있다. DAPLS라는 이름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꿈꿀 수 있고(Dream),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Art), 아이답게 놀 수 있어야 하고(Play), 그 과정에서 모두가 배우고 공유할 수 있다(Learning& Sharing)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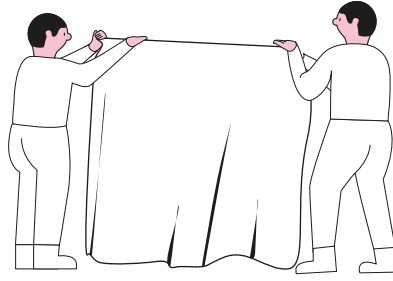
*답엘에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dapls.org 참조

강연 - “제주에서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아마도 '플라스틱 문제를 얘기하는데 웬 세계시민?'이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돌아가더라도 분명 제 길로 갈 테니 염려 말고 들어주세요.” 연사들은 이렇게 서두를 열었다. 그리고 그러한 염려는 분명 기우였다.

끝까지 듣고 보니 플라스틱과 세계시민은 정말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방글라데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가난과 홍수를 떠올리실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홍수 피해가 참 많은 나라였죠. 2000년에 또 홍수가 터졌는데 그때 비닐봉지가 수도관을 막아버려서 더 큰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2년에 세계 최초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죠. 환경 문제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흐지부지 규제가 느슨해지기는 했지만요.”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는 개발도상국이 훨씬 크게 입습니다. 미세먼지가 전 세계적인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유럽 하늘은 파랗더라고요. 어쩌면 미세먼지도 개발도상국의 희생이 따른 결과는 아닐까요?”

“가상수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해서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말해요. 그럼 티셔츠 한 장의 가상수는 얼마일까요?”

100리터요? 300리터요? 나름 신심 쓰듯 수치를 올려보았지만 정답에는 한참 멀었다. 정답은 4000리터였다. 아무리 에코백이 일회용보다 낫다고 한들 에코백의 가상수까지 고려하면 에코백도 오래오래 써야 한다는 뜻이다. 패스트패션을 넘어 올트라 패스트패션이 된 현재의 옷 소비문화는 분명 반환경적이다. 패스트패션업체들은 인건비가 싼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차리고 2주 간격으로까지 빨라진 유행 주기에 맞추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새 옷을 찍어낸다. 의류산업은 석유 다음으로 해로운 산업이다. 합성섬유만 환경에 해로운 것도 아니다. 면화를 생산하는 데도 엄청난 물이 필요하며 엄청나게 많은 농약도 사용한다.



사진으로 본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에서 의류 생산 공장 다섯 개가 뭉쳐 있던 8층짜리 건물이 붕괴한 사고) 현장은 참혹했다. 이 사고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피해자는 의류공장 노동자들이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바꿀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 연결 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계시민입니다.”

연사들은 직접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소개했다. 여행할 때 밀폐 용기를 갖고 다니기, 필요 없는 것은 거절하려고 노력하기, 세이브제주바다(제주 바다 정화 활동을 하며 각종 캠페인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참여해 바다 쓰레기 줍기, 채식하려고 노력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특히 식단을 한 번에 채식으로 바꿀 수는 없더라도 채식을 시도해보면 소수자가 되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아주 단기라도 생각이 확장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언도 해주었다.

DAPLS 추천 도서

Subject. 공감



01 다가오는 말들

지은이 : 은유
출판사 : 어크로스(2019)



02 사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지은이 : 류승연
출판사 : 푸른숲(2018)



Subject. 관심

03 작전명 서치라이트: 비랑가나를 찾아서

지은이 : 사힌 아크타르
옮긴이 : 유숙열
출판사 : 이프북스(2018)



04 가난을 팝니다

지은이 : 라미아 카림
옮긴이 : 박소현
출판사 : 오월의봄(2015)



Subject. 행동

05 무탄트 메시지

지은이 : 말로 모건
옮긴이 : 류시화
출판사 : 정신세계사(2003)



06 사랑할까, 먹을까

지은이 : 황윤
출판사 : 휴(2018)



07 아무튼, 비건

지은이 : 김한민
출판사 : 위고(2018)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미래책방에서도 참여하신다는 관덕장 좀 소개해주세요.

건강한 소비를 지향하는 관덕장은 관덕로 4길에서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업사이클, 리사이클을 주제로 열리는 중고마켓입니다.

참가신청 : open.kakao.com/o/gAFc9ttb



“관덕장은 아껴 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와 NO 플라스틱 백을 추구하는 폴리마켓 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열고 물물교환이나 무료 나눔도 할 수 있어요. 제게 있는 물건과 필요한 물건을 올려놓고 물물교환할 사람을 찾아요. 그냥 나눔도 하고요.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어요.”

“아나바다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에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몰라서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에 쌓여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특히 모기장 텐트요.”

“분리수거에 관한 상세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어요.”

“업사이클은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해요.”

합성 섬유에는 폴리에스터, 아크릴, 고어텍스, 폴리우레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의류에서 일년에 천 톤이 넘는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합성 섬유를 세탁기로 한 번 빨면 미세 플라스틱 70만 개가 하수도로 흘러 들어간대요.”

“호텔에서 폐기한 리넨으로 에코백을 만들었는데 재활용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업사이클의 딜레마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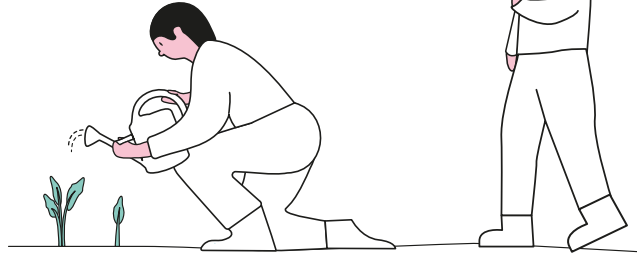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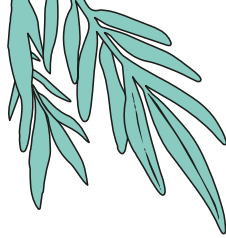
“제주도의 쓰레기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할 방법은 없을까요?”

“한복에는 아껴 쓰는 지혜가 숨어 있어요. 자투리까지 색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일회용 봉지 없이 장보기를 실천하는 중인데 생선은 어디에 어떻게 담아서 사와야 할지 고민돼요. 좋은 방법 없나요?”

“더 이상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려고 유기농 면으로 된 네트백을 여러장 샀어요. 근데 마트에 갔더니 과일, 채소, 고기, 반찬 거의 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돼서 가져간 네트백이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요즘 식재료들이 이미 비닐팩에 싸서 나오더라고요. 필요한 만큼 가져온 용기에 살 수 있는 벌크샵과 농부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아보카도 한 알을 키우는 데 드는 물의 양은 약 320ℓ으로, 이는 성인 160명이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저는 아보카도와 깐 새우를 먹지 않아요. 아보카도는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작물로 손꼽힌다고 해요. 깐 새우는 아동 노동의 결과물이래요. 작은 손이 새우를 까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래요.”

“저는 한살림 생협에서 장을 보는데요. 감자, 양파 등을 날개로 구매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뀐 것도 겨우 최근이에요.”

“플라스틱 포장지를 모두 마트에서 버리고 오는 캠페인을 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캠페인을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이라고 하는데 생산자더러 책임지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마을에서 잔치를 하면 집집마다 식기를 모아서 잔치를 치르고 다시 돌려주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가 붕괴되어 그게 불가능해지고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모든 물건을 소유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공동체의 물리적인 회복은 중요하지 않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 공동체를 이루면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만, 큰 문제는 사회로 나왔을 때 어른들이 실천을 안 한다는 사실이죠.”

“요즘 세계적으로 10대들의 목소리가 영향력이 커요.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대표적이죠.”

“우유팩은 종이보다 훨씬 품질이 좋은데, 우유팩과 재생 휴지를 바꿔줄 수 있도록 우유팩만 따로 모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어떨까요?”

“제주도는 섬이라서 특히 물건 살 때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데 박스를 다 버린 후에 정작 필요할 때는 새 박스를 돈을 주고 사지요.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택권이 있다면 더 비싸더라도 지역에서 사려고 노력해요.”

마무리

“개인의 활동으로 환경 재앙을 정말 막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만, 나로 인해 주변을 변화시켜야 기업도 정부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목소리를 내고 감시해야겠어요.”

“더 행동할 부분 많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분리수거 나름 좀 실천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 이야기 듣고 반성하게 됐어요.”

“말괄 랩이라는 제품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런 정보 공유 너무 좋아요.”



문화도시제주 소식



사랑에 답하다

일시 :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3시, 6시

장소 : 아트인 명도암 갤러리 (제주시 명림로 209)

티켓 : 감동 후불제 (공연 관람 후, 감동받은 만큼 지불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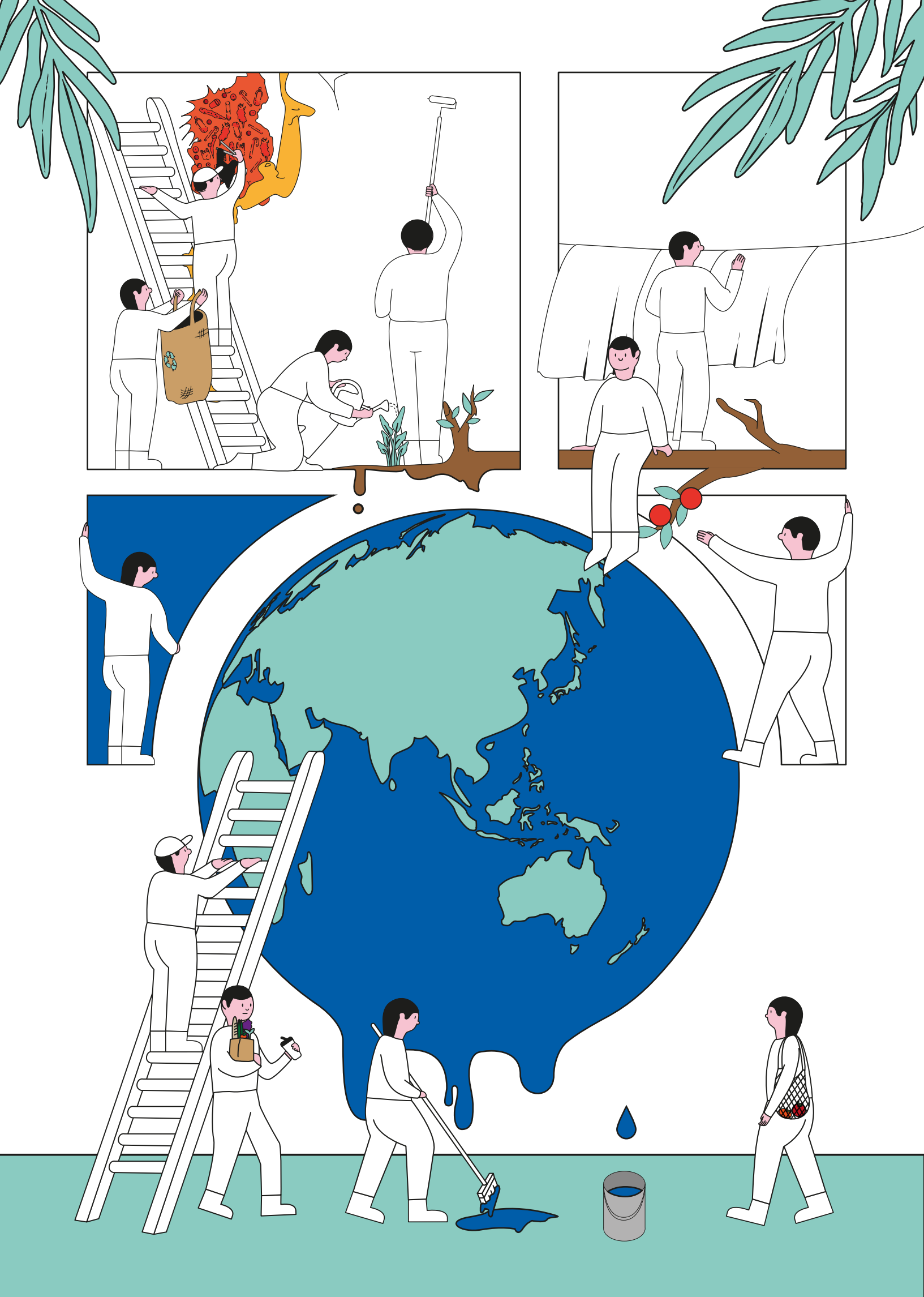
관람가 : 13세 이상

공연문의 : salon.de.the.jeu@gmail.com

주최 : 제주시

주관 : 살롱 드 떼 제주 <salon de the jeju>

참가신청 : bit.ly/사랑에답하다



오염된 지구
우리가
그랬어

‘우리가그랬어’는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